장흥군 4만명 붕괴…'인구 지키기' 백약이 무효

새해 4만명 밑으로 내려앉아
합계출산율도 전남 꼴찌
다양한 출산정책 효과 못 봐
출산장려금 확대 조례안 시행

장흥군 인구가 4만명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이후 다시 무너진 것으로 수억원의 출산 장려금과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면서도 '인구 지키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흥군은 다시 출산장려금을 높이는 조례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단시간 내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구 늘리기에 치중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인구 4만명선 붕괴**=장흥군 인구는 1월 말 기준 3만9994명으로 처음 4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3년 4만3004명이던 장흥 인구는 2016년 4만669명으로 내려간 뒤 지난해 7월 3만9961명으로 4만명선이 첫 붕괴됐고 지난해 말 4만 136명까지 올랐다가 올 들어 4만명 밑으로 내려앉았다.

장흥군 안팎에서는 예상된 결과임에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만명 지키기'를 위해 여태껏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으며 인구 감소를 막는데 안간힘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다.

◇**출산율도 꼴찌**=장흥의 인구 4만명선 붕괴는 '합계출산율'로도 예측 가능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의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1명(2016년)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꼴찌다.

2014년 1.28명에서 2015년 1.20명으로 줄어들더니 1.01명(2016년)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남 꼴찌였던 고흥의 합계출산율이 1.10(2014년), 1.09명(2015년)에서 1.32명으로 뛴 것과 대조적이다.

◇**백약이 무효?**=장흥군은 조만간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군의회에 올릴 계획이다. 입법예고를 밟고 있는 조례안의 골자는 출산장려금을 첫째·둘째 아이의 경우 300만원, 셋째·넷째 아이는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그동안은 첫째 7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이었다.

지급 대상 기준도 완화해 부모 모두 주소를 장흥군에 둬야 했던 방침을 바꿔 부모 중 한 명만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장흥군은 출산장려금 상향을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3억 5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올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장흥군은 지난 2016년 2억5000만원 규모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의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매년 수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장흥군은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서 결혼 전 한 명이라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250쌍에 대한 장려금 예산 5억원을 확보해놓았다.

장흥군은 이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탄생축하용품 지원, 전입세대 지역 관광지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홀로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장흥읍 직원들과 새마을 부녀회원들은 최근 '한끼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에 따라 생일을 맞은 홀로사는 노인 집을 찾아 건강을 살피고 대화를 나눴다. 〈장흥군 제공〉

영암도기박물관 생활도예교실 수강생 15명 모집

영암도기박물관은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도예강좌 생활도예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15명(선착순) 이내로 도기 빚기에 관심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도예교실은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 5시에 진행되며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도예교실 수강생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도예동아리 회원으로 지속적인 문화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장흥~제주 바닷길 다시 열린다

5월부터 여객선 취항 협약…30억원 재정지원 놓고 논란

장흥~제주 정기 여객선 운항이 재개될지 관심이다.

하지만 3년 전 같은 노선에 여객선이 취항했다 중단된데다, 수십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감수키로 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1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장흥고속해운과 장흥~제주 간 여객선 운항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장흥고속해운은 130억원을 투자해 2500t급 규모의 여객선을 제주 항로에 오는 5월부터 투입할 계획이다. 여객선 규모는 승객 710명과 차량 58대를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쾌속선으로 제주항까지는 2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장흥군은 제주 바닷길이 다시 열리면 여객선이 출항하는 노력항의 국가 연안항 지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흥군은 항로 주변의 불법어장을 정리하고 터미널 임대계약, 홍보 등 여객선 취항과 운항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장흥군은 특히 선사측의 재정지원 요구사항(30억원)과 관련, 3년간 30억원을 차등 지급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열악한 재정형편에 수십억원을 지원금을 내놓으면서 여객선 운영을 재개하는데 따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운항을 시작한 4114t급 쾌속선 오렌지호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은 지난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흥고속해운과 장흥~제주 간 여객선 운항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 제공〉

설 명절 앞두고 인기 끄는 강진 특산품 2제

명절 선물 토하젓 주문 폭주

강진 토하젓〈사진〉이 인기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강진산 토하젓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다.

옛 궁중 진상품이었던 강진산 토하젓은 1급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민물새우를 저온숙성 시켜 만든 것으로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특히 강진 토하는 칠량면과 옴천면 일대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자연 상태의 환경에서 서식하던 최상의 토하를 이용해 상품을 만들고 있다.

토하는 천일염을 입힌 염장 토하와 찹쌀, 참깨, 생강, 마늘과 함께 고춧가루를 넣은 양념토하젓 2가지 종류로 만들어진다.

토하젓 특유의 씹히는 맛은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밥도둑으로 인기가 높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뽕잎 막걸리 웰빙 주류 각광

강진 뽕잎 막걸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 도암주조장이 생산한 뽕잎 막걸리가 웰빙 주류로 각광받으면서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뽕잎 막걸리는 뽕나무 뽕잎을 건조한 뒤 250~300도의 온도에서 20분 볶아 8일간 발효시켜 텁텁한 맛을 배제한 게 특징이다.

뽕잎은 각기병과 몸이 붓는 증세, 소갈증(당뇨병), 뇌졸중,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막걸리의 효소와 궁합이 맞는 대표적 식물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흥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고심

김성 군수 의견 수렴 간담회
육아휴직 연장 등 일단 수용

장흥군이 무기계약직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장흥군에 따르면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군 산하 무기계약직 전체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은 이날 급여인상을 비롯, 교통비, 유아휴직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급여의 경우 일반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봉급체계로 책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가' 직군, '나' 직군(행정보조원), 환경미화원 등 '다' 직군으로 나뉘는데, 일반 단순사무보조 업무를 보는 '가' 직군 대상자들은 업무상 차이가 없는 만큼 '나' 직군과 급여체계를 일원화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규직 공무원들이 출장명목으로 지급받는 여비 성격의 교통비·수당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여성들의 경우 육아휴직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가족돌봄휴가(3일) 보장 등을 요청한 상태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와관련, 정부 출산장려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아휴직 1년 유급 2년 무급 ▲가족돌봄휴가(3일) 등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급여의 경우 총 인건비 예산 등을 감안해야 해 자치단체가 임의로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무기계약직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마련 급여체계, 처우대책, 등을 일관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장흥군 산하 무기계약직 인원은 전체 정규직 589명 중 301명, 42%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5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장기투자 최적**
- 매매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거문도,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음**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음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